보 도 설 명 자 료
('18. 7. 24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제목 : 산업부, 정책 발굴보다 뒤처리 하느라 급급
('18. 7. 24, 내일신문)

1. 기사내용

□ 백운규 장관 이후 경제장관회의 상정된 산업부 안건은 7건에 불과

□ 산업부는 취임 1년이 지나서야 12대 기업 CEO 처음 만나고, 산업 정책은 고용위기지역 지정한 것 밖에 없는 등 소극적인 모습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백운규 장관 취임 이후, **총 40건 이상의 정책 발표**

○ 범부처 장관급 회의체인 **경제장관회의 7건, 산업경쟁력장관회의 7건, 대외경제장관회의 13건** 안건 발표

○ 국회, 업종별 간담회, 위원회 등에서 **「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」**('17.12월)을 포함하여, **업종별·기능별 대책 14**여건 발표

< 제조업 관련 주요 발표 정책 >

	정책	일정		정책	일정
1	제2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	'17.11	8	지능형 로봇산업 발전전략	`18.2
2	신산업 표준화로드맵	`17.12	9	반도체·DP 산업 정책방향	`18.2
3	재생에너지 3020	`17.12	10	바이오·헬스산업 발전전략	`18.2
4	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	'17.12	11	IoT가전산업 발전전략	`18.3
5	미래차 산업 발전전략	`18.2	12	섬유패션산업 발전전략	`18.3
6	중견기업 비전2280	`18.2	13	조선산업 발전전략	`18.4
7	화학산업 발전전략	`18.2	14	뿌리산업 일자리 조성방안	`18.5

□ 신산업 분야별로 기업 CEO,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**업종별 간담회**, **「산업혁신 2020 플랫폼」***, **12대 기업 CEO 간담회** 등을 개최하여 기업 투자계획·애로소통 및 지원방안 협의

* 5대 신산업 프로젝트의 **투자·고용 로드맵**('18~'22년간 160조원 투자, 20만개 일자리 창출), **수소차 생태계 구축방안 발표**

□ 또한,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조선업 경쟁력 제고, 대체·보완산업 육성,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업정책 차원에서의 **산업위기지역대응특별지역 지정**과 함께 추진된 것임

□ 앞으로도 정부는 **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**을 지속 수립하고, **국민이 체감**할 수 있는 **가시적 성과를 창출**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음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김완기 과 장(044-203-4210)
최태준 사무관(044-203-4211)

Minist